한국 민주화의 씨앗이 된 광주·전남 '민중의 힘'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한국민중항쟁 답사기-광주·전남 편

이혜영 지음

"1980년대는 너무 먼 이야기라고요? 6·25나 6월항쟁이나 똑같이 까마득하다고요? 맞아요, 나도 그랬어요. 동학혁명이나 3·1운동이나 4·19나 한 덩어리로 '먼 시대'였어요. 그런데 조금 살아보니까 10년, 20년이 후딱 흘러가더라고요. 1980년 5·18도, 1987년 6월항쟁도 사실 멀지 않아요. 우리 등 뒤에 있어요. 지금의 우리를 만든 바로 엊그제의 역사였어요. 그런 항쟁이 없었으면 지금 당신과 나의 표정은 훨씬 어두울 거예요. 그때 쇠파이프를 들었기 때문에 2017년에는 촛불만으로도 권력을 끌어내릴 수 있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본문 중에서)

오늘의 나는 지나온 역사가 만든 '산물'이다. '나를 만든 현대사'라는 말은 그래서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현대사'라는 말에는 격동과 대립이라는 단어들이 투영돼 있다. 그럴 만도 하다. 이승만 독재에 항거했던 4·19, 신군부에 맞섰던 5·18민주화운동, 불의한 권력에 대항했던 촛불혁명은 현대사의 주요 장면들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민중들의 항쟁사를 재구성한 책이 발간됐다. '한국 민중항쟁 답사기-광주·전남 편'은 한국 민중항쟁 답사기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다. 저자인 이혜영 씨는 광주시 양동 발산마을에서 나고 자라고 서울대 독문과를 졸업했다. 서른 무렵 고향으로 돌아와 글을 쓰고 있으며 '지리산 둘레길' 등을 펴냈다.

책에는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광주·전남 민중항쟁의 역사가 담겨 있다. 함평 고구마 피해보상 투쟁, 전남대 '함성'부터 '교육지표'까지, '5·18민중항쟁·80년 5월의 절대공동체', '들불야학사람들·오월시민의 탄생·6월항쟁' 등을 다룬다. 또한 '인동초 김대중', '나주 수세거부 투쟁', '투사가 된 노래들', '조선대 학원민주화 투쟁' 등 남도의 아픈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저자는 "그간 '지방'으로 일괄처리된 각 지역의 역사에, 그 지역의 서술로 생기를 불어넣고자 한다"며 그럼에도 "나는 여러모로 어설픈, 경계인"이라고 말했다. 서른에 돌아와 시작한 고향살이에 대한 단상일 것이다.

책은 '사료' 중심이 아닌 '땅'과 '인물'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 민중항쟁 현장 답사기이자 역사인문지리지로 다가오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책에서 상정하는 광주와 전남은 한 몸이다. 광주가 전남의 자양분을 먹고 자랐다는 뜻이기도 하다. 비록 1986년에 분리됐지만 "생활, 역사, 여가 모든 것이 한 덩어리였다"는 의미다.

전남대 교정에는 유신독재에 항거했던 '우리의 교육지표'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먼저, 함평 고구마 피해보상 투쟁은 1976년부터 3년에 걸친 싸움이었다. 손에 쥔 실제 금액이 겨우 23원인 농민도 있을 만큼 가없는 투쟁이었다. 정부가 요구하는 금액(309만원)을 제시하며 생산장려금으로 하자고 했지만 농민들은 단호히 거부했다. '고구마는 자존감의 다른 이름'이었다.

유신에 저항하던 첫 함성도 광주에서 태동했다. 1972년 12월 9일 밤, 전남대를 비롯해 광주고·전남여고 등 학교에 유인물이 뿌려졌다. 전국 최초 반 유신 선언문 '함성'이 출현한 순간이다. 제작의 주역이었던 이강과 김남주는 모진 고초를 당했고 제적을 당했다.

이후 서울의 대학에서 반유신 시위가 확산됐으며 무소불위의 긴급조치가 내려졌다. 1974년 민청학련, 그리고 1978년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의 불씨가 됐다.

80년 5·18은 한국 민주화 여정의 횃불이자 현대사의 가장 아픈 비극이다. 전두환 일당의 신군부는 'K-공작'(K-King 앞 글자, 전두환 왕으로 만듦) 계획에 따라 광주에서 총과 칼을 앞세워 무자비한 진압작전을 폈다. 그러나 아직까지 80년 광주는 현재 진행형이다. 최초 발포명령자, 헬기사격, 실종자 등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저자는 전라도야말로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로 도약하는 데 큰 길잡이 역할을 했다고 강조한다. 즉 전라도인의 헌신이 오늘을 거쳐 내일로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책을 통해 특히 젊은 세대와 소통을 꿈꾼다는 말은 그런 연유일 터다.

〈내일을 여는 책·2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5·18민중항쟁 10주기를 맞아 전남대 학생들이 사범대 벽면에 그린 민중항쟁도. 〈내일을 여는 책 제공〉

아이젠

김남숙 지음

2015년 단편 '아이젠'으로 문학동네신인상을 수상했던 김남숙은 당시 심사위원들로부터 "날것의 감성 혹은 타고난 감각"(소설가 조해진), "날카로운 이미지의 직관적 채집"(문학평론가 강지희)이라는 평을 받았다. 익숙한 일상을 작가 특유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촉수가 예사롭지 않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번에 김 작가가 펴낸 '아이젠'은 강렬한 이미지로 불온한 생명력을 그리는 단편들이 담겨 있다. 표제작 '아이젠'을 비롯해 '파수', '귀', '이상한 소설' 등은 오늘날 전망 없는 세대의 청년들의 삶 이면에 드리워진 실상과 욕망을 그린다.

등단작이자 표제작인 '아이젠'은 감각적인 이미지들이 중첩되면서 풍성한 결을 이루는 소설이다. 서사의 줄거리는 '나'와 '두치'라는 인물의 이야기다. 서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지만 엇갈리는 두 인물은 일상적인 남녀의 관계와 유사하다.

나의 현재의 상황은 탈출구가 없을 만큼 어둡다. 예술에 푹 빠진 나머지 비현실적인 아버지, 그리고 사고로 인해 지능장애가 있는 언니가 곁에 있다. 군대에서 폭력적 질서에 시달리는 두치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 이들이 사랑을 지속하기에는 현실은 말 그대로 사치일 정도다. 일견 불가능해 보이는 인물들의 사랑은 아버지의 예술에 대한 열정과 맞물려 이색적인 서사와 느낌을 선사한다.

작가는 작가의 말에서 "어떤 사람들은 실소하겠지만 나에게는 소설을 쓰는 것이 나를 어느 정도 개호할 수 있는 방법처럼 느껴진다. 나를 덜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한다. 소설 속 그들은 나를 떠나지 않을 테니까. 그렇기에 살아야지. 막 아니고 잘"이라고 말한다.

〈문학동네·1만3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모든 책 위의 책

고윤기 지음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이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 역사 속엔 수많은 전염병이 등장한다.

신라 승려 혜통(惠通)이 활동하던 당시에도 괴질이 창궐했다. 혜통은 당나라 황실의 공주의 병을 고쳐줬는데 괴질이 원인이었다. 몸 안에 있던 괴질은 이무기로 변해 신라 경주에까지 도망쳐, 닥치는 대로 사람을 헤쳤다. 그리고는 정공이라는 인물의 집에 있는 버드나무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마침 왕이 정공 집 앞을 지나게 돼서, 관리가 버드나무를 자르려 했다. 정공은 "차라리 내 목을 벨지언정 이 나무를 자르지 못한다"고 반발했다. 결국 정공은 죽게 되고 그의 집마저 묻힌다.

삼국유사를 오늘의 관점을 읽어낸 책이 발간됐다. 고운기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펴낸 '모든 책 위의 책'은 이 땅에서 살아온 이들의 삶을 오늘의 이야기로 풀어낸다. 삼국유사 시리즈인 '스토리텔링 삼국유사'를 집필중인 저자는 1차분 다섯 권을 낸 바 있다.

일찍이 저자는 '삼국유사'를 "정년 우리 역사를 지식인의 역사에서 민중의 역사로, 사대의 역사에서 자주의 역사로 바꿔놓은 책. 우리 문학을 지식인의 문학에서 민중의 문학으로, 사대의 문학에서 자주의 문학으로 바꿔놓은 책"이라고 평한 바 있다.

이번 책은 '삼국유사' 속 이야기 한 대목을 지금의 이야기에 더해 저자 일연의 심리를 헤아린다. 일종의 원저자와 현 저자 그리고 책을 읽는 독자와의 상호 소통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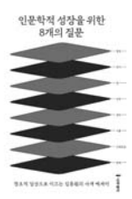
책에는 모두 40개 이야기가 실려 있다. '만파식적과 가미카제', '껍질을 깨고 허물을 벗고', '바위를 굴려 얻은 아이', '선화공주와 헤어질 시간' 등 각각의 서사는 재미와 함께 일말의 역사에 대한 안목을 넓혀 준다.

〈현암사·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인문학적 성장을 위한 8개의 질문

김종원 지음



"나는 언제나 나를 유지할 것이다. 세찬 바람이 부는 날이든 평온한 날이든 상관없이 나는 늘 '아, 이게 바로 내가 추구하는 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딱 그만큼의 나를 유지할 것이다. 나는 지금의 내가 좋다. 나를 구성하는 모든 나를 사랑한다."

오롯한 '나'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담은 '인문학적 성장을 위한 8개의 질문'이 출간됐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한다. 인문 교육 전문가로 콘텐츠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 김종원은 '무엇'에 대한 기준과 방향이 그 사람이 살아갈 인생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책은 1장 '열정-나는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가', 2장 '언어-나의 말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3장 '일-쟁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가', 4장 '성장-결핍은 어떻게 삶의 철학이 되는가', 5장 '생각-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6장 '기품-기품 넘치는 눈빛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7장 '조화로운 삶-평온한 삶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8장 '관계-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로 구성됐다.

저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며 최고의 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인생에 대해, 삶의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야한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질문의 주체는 '나 자신'으로 저자가 책 속에 풀어놓은 삶의 방식이나 철학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터전이 어떠한가 살펴보고 나에게 질문함으로써 나의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무생각·1만48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청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